

〈2019년 11월 공무국외여행 귀국 보고서〉

출장제목	민간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-독일 출장			
여행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라북도 교류희망 지역인 네덜란드와 독일과의 민간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및 관계자 업무협의 			
여행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독일 드레스덴·뮌헨, 네덜란드 헬데를란트주 			
여행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9. 11. 28.~12. 4.(5박7일) 			
보고서 작성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제진흥팀 조가희 			
출장자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	국제진흥팀	주임	조가희	

붙임 출장 결과보고서(폰트 나눔 고딕으로 변경)

-글로벌 문화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-

민간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·독일 출장 결과보고

I 개 요

- 출 장 지 : 네덜란드(헬데를란트주), 독일(작센주 드레스덴, 바이에른주 뮌헨)
- 출장기간 : 2019. 11. 28.(목) ~ 12. 4.(수) <5박 7일>
- 출 장 자 : 국제진흥팀 ※ 전북도 국제협력과와 동행 출장
- 출장목적 : 네덜란드, 독일 교류희망 지자체 주정부 면담으로 민간교류 추진 협의

II 주요 성과

- 네덜란드 헬데를란트주, 독일 작센주·바이에른주와의 민간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 기반 분위기 조성

III 세부내용

1. 네덜란드 헬데를란트 주정부 방문 및 관계자 면담

- 일시/장소 : '19. 11. 29.(금) 11:00~12:00 / 헬데를란트 주정부 청사(네덜란드 아른헴)
- 참 석 자 : 헬데를란트주 경제국 농식품혁신부장, 전북도 국제협력과 센터 직원 등 5명
- 주요내용
 - (센터)
 - 지방 축제 및 문화행사 참여를 통한 매력전북 홍보 및 문화교류 희망 의사 전달
 - (헬데를란트 주정부)
 - 주정부는 경제·산업 분야 등 실익 창출이 가능한 국제교류를 우선시하여, 교류 중인 독일·북프랑스·중국 지자체와의 교류도 경제·산업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돼 왔다고 설명
 - 따라서 전북도와의 교류 또한 농식품 분야 경제·산업 교류를 우선 추진 후 문화행정 등 분야로 점진적 확대 추진 가능할 것이라 언급

2. 와게닝겐 대학 연구센터(WUR) 방문 및 관계자 면담

- 일시/장소 : '19. 11. 29.(금) 15:30~17:00 / 와게닝겐 대학교
- 참 석 자 : 와게닝겐 대학연구센터 상주 농촌진흥청 파견 연구원, 전북도 국제협력과 센터 직원 등 5명
- 주요내용
 - (센터) 네덜란드 헬데를란트주와의 국제교류 추진 방안에 대한 자문 요청
 - (이경태 박사)
 - 네덜란드는 대상국과 산업·경제 교류 기반을 우선 구축하고, 이를 바탕으로 타분야로 교류를 확장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, 한국·일본·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교류 구상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
 - 이에 따라 헬데를란트주와의 교류를 위해서는 전북도의 산업·경제적 강점에 기반한 협력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제언

3. 독일 작센 주정부 관계자 면담

- 일시/장소 : '19. 12. 2.(월) 12:00~14:00 / 작센주 드레스덴 시내 식당
- 참 석 자 : 작센 주정부 국제관계국장, 국제협력자문가, 작센경제개발공사 부사장, 전북도 국제협력과, 센터 직원 등 8명
- 주요내용
 - (센터)
 - 현재 전북도·작센주 협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드레스덴 공대 간 연구 협업만 추진되고 있어, 다양한 분야 교류 추진 희망 의사 전달
 - (작센 주정부)
 - 작센주는 폴란드·체코·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위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, 최근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
 - 신규 교류 시에는 교류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산업체 교류 등 실익 창출 기능 분야 교류를 중점 추진하고, 부차적으로 고등교육 및 문화 분야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
 - 따라서 자동차 산업 등 실익 창출이 가능한 상호교류 공통 분야를 찾고 구체적인 교류 사업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
 - 문화교류의 경우, 작센 지역을 관할하는 드레스덴 주재 한국 명예영사가 문화예술

교류에 관심이 많은 바, 드레스덴 시청 및 작센주 관할 공간인 주독일 베를린 대사관과의 연락을 통해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

- 대학 교류의 경우, 독일 교육시스템 특성상 대학이 강력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정부가 대학에 특정 지역과의 교류를 강력히 요구할 수는 없으나, 전북도내 대학 소개추천 등 기본적 연계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

4.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방문 및 관계자 면담

- 일시/장소 : '19. 12. 3.(화) 10:00~11:00 /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청사
- 참 석 자 : 바이에른 주정부 국제경제관계부장, 전북도 국제협력과, 센터 직원 등 4명
- 주요내용
 - (전북도) 바이에른주와의 교류·협력 추진 방안 자문 요청
 - (바이에른 주정부)
 - 바이에른주는 탄소와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어, 두 분야를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북도와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 언급
 - 특히 바이에른 주정부는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 등 지역 내 클러스터에 참여하려는 해외 기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, 전북 기업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
 - 한편 바이에른 주정부는 독일 주재 공간, KOTRA 사무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연락을 선호하므로, 협력 추진 시 해당 사항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 조언

IV 금후 계획

- 네덜란드·독일 지역 대상 해외신흥교류확대 사업 추진 검토 : '20년 1~2월



네덜란드 헬데를란트 주정부 방문



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연구센터 방문



독일 작센 주정부 면담



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방문